

서울대 수시 합격 ... 화제의 4인

아버지에 간 이식한 효자

금호고 이용준군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한 광주 금호고 3학년 이용준 군은 지난해 가을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시켜 화제가 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이던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비 마련이라는 새로운 벽에 부딪혔지만, 이 군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자 학교 친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온정이 답지해 무사히 아버지의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 수술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모금돼 나머지는 병원과 보육시설 등에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다. 간 이식과 입원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나갈 수 없었던 이 군은 병상에서는 물론, 학교에 복귀한 뒤로 더욱 학업에 매진했다.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에게 찾아가 질문 공세를 펼쳤다고 한다. 이 군은 "어려움에 처한 저를 도와준 분들에게 보답하도록 사회에 공헌하는 경제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움 속 과학도 꿈 키워

동신고 김용환군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명공학부에 합격한 광주 동신고 3학년 김용환 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누나 셋과 함께 고향 장흥을 떠나 광주의 고모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같은 날 세상을 떠간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 군의 열렬한 어머니 가정 형편의 학생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늘이 없다. 남들 다 가는 학원은 '언감생심'이었던 만큼, 학교 수업에 김 군만큼 열정을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교사들은 전했다. 김 군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축구를 즐겨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말처럼, 김 군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딱한 형편을 알아 본 장학회는 대학 4년 장학금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 군은 "좋아하는 과학을 대학에서 계속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대학에 가면 가장 먼저 영어 시험 공부가 아닌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버지 위해 생명공학 지원

담양고 김창남군



14일 서울대 수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담양고 3학년 김창남군은 중학교 1년 때 만성신부전증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생명공학을 전공, 유능한 생명과학자를 꿈꾸고 있다. 어려운 살림으로 학원이나 과외 교습은 꿈도 꾸지 못한 김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서울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자연과학 생명공학부에 합격했다. 모교인 담양고에 개교 이래 최초의 서울대 합격자라는 선물을 안긴 김 군은 자연과학을 좋아해 수학과 과학은 항상 최상위 성적을 유지한 준비된 과학도다. 김 군은 "바른 자세로 집중력을 갖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 들어 해결하고 넘어가는 학습방법이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됐다"고 밝혔다.

헌신적 어머니 뒷바라지 보답

영암여고 정다정양



"공부만이 제가 엄마에게 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2009학년도 서울대 의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영암여고 3학년 정다정 양은 "어머니의 헌신적 뒷바라지에 조그만 보답을 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며 3남매의 뒷바라지를 해온 어머니 김명심(48)씨를 위해서 이틀 약문 정 양은 고교 생활 3년간 단 한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입학 후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정 양은 과외는 꿈도 꾸지 못하며 부족한 공부는 학교 선생님에게 묻거나 방과후 수업으로 입시 준비를 했다. 짧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의대 진학을 결심한 정 양은 대학 졸업후 국립암센터에서 암 치료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공부를 해 새로운 암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꿈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임건우 보해회장 '한국 CEO 그랑프리상'

보해 장학회·봉사단 운영 사회공헌



임건우 보해양조 회장이 '한국CEO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해양조는 "지난 12월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국 CEO 그랑프리' 시상식에서 보해 임건우 회장이 음식료품 부문 CEO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인쇄주·복분자주 등 명품 주류를 개발해 세계에 널리 알려왔으며, 보해 덕천장학회, 젊은이새 사람나눔봉사단 등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선 점 등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경제 위기에 기죽지 말자"

법정스님 길상사 법회서 강조



불교계의 명사 법정 스님은 14일 최근의 경제 위기에 대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 탐욕이 빚은 과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어려움도 한두 해가 지나면 풀릴 것이니 이럴 때일수록 기죽거나 휘둘리지 말자"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이날 자신이 '어른 스님'으로 있는 서울 성북2동 길상사의 창건 11주년 법회에서 행한 법문을 통해 "맑은 정신으로 (경제 위기) 배후의 뜻을 냉철히 보고 새로운 각오로 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을 배우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는 그때그때 마무리를 짓지 않은 안이한 삶 탓에 빚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성장 위주의 정책과 무절제하고도 부도덕한 경제 팽창은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지속할 수 없으며, 이는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는 인간의 탐욕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지구 전체가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여러 나라마다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이는 탐욕을 경계하는 것이자 분에 넘치는 '풍요의 환상'에서 깨어나라는 뜻을 전한다"며 "잘못 길든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일대 전환해 인간의 품위와 도리를 지키고 사람

답게 살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70년대 석유 파동은, 90년대 말 외환 위기도 극복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번 위기도 한두 해가 지나면 풀린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죽거나 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배후의 뜻을 냉철히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정 스님은 "12월은 마무리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때그때 마무리하는 과정을 통해 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삶을 배우자"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이날 법회에는 신도 1천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길상사 측은 절 법전에 공이 있는 여러 신도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연행뉴스



"소외된 이웃에 정과 사랑을"

전남체신청 봉사 릴레이 펼쳐

전남체신청(청장 김치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는 '사랑 나눔 한마당'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7개 우체국 직원 및 보편관리사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 북광주우체국의 은계로담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팔골 마

을인 해남우체국의 노인요양원에 이르기까지 독거노인·장애인시설 등을 찾아 청소·빨래, 연탄배달, 도배·장판 갈아주기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담양우체국 직원 25명이 사회복지시설 은우리를 찾아 겨울나기 열감을 마련해 줬으며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북구장학회 84명에 6,700만원 전달

(재)광주시 북구장학회(이사장 고재일)는 최근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지역 우수 인재 84명에게 6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북구장학회는 지난해 10월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까지 조성된 장학기금은 22억1천500만원이다. /이종태기자 golee@kwangju.co.kr

국제로타리 3710지구 이웃돕기 성금 전달



국제로타리 3710지구(총재 김용채) 60여개 클럽은 지난 13일 KBS 광주총국 공개홀에서 지난 1년 동안 회원들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4천337만원을 월드비전 등에 전달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조중환·이성엽씨 장남 기영 (KIA 타이거즈 홍보팀)군 김남숙·최맹순씨 차녀 은정양=21일(일) 낮 12시20분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사파이어홀.

동창·동문회

▲광주 북성중 15회(회장 정본진) 송년 모임=15일(월) 오후 6시30분



프라다호텔. 062-654-9999.

▲송의고 16회(회장 강신범) 부부 동반 송년모임=16일(화) 오후 7시 오렐리아웨딩홀. 062-385-7800.

▲재광 전주 영생고 동문(회장 박노호) 송년 모임=16일(화) 오후 6시30분 중장로 엔터시네마 7층 전가 북. 062-233-2337.

▲재광 보성중 27회(회장 구재근) 송년회=16일(화) 오후 7시 첨단지구 엘레강스. 062-971-2020.

▲광주 북성중 16회(회장 강해동) 송년 모임=16일(화) 오후 6시 송원회관. 062-223-0028.

▲목포중·고등학교 재광동창회 송년회 밤=19일(금) 오후 6시 농성동 메리어트웨딩홀 2층 건넌선홀. 062-222-0030.

▲광주 북성중 14회(회장 이현규) 부부 동반 송년 모임=20일(토) 오후 6시 히딩크관광호텔 6층. 062-227-8500.

▲조대부고 20회(회장 임성기) 송년회=20일(토) 오후 6시30분 현대예식장 건너편 화랑공회관. 062-223-7340.

중친회

▲청주김씨 재광 중친회(회장 김명식) 이사회회=16일(화) 오후 6시 광주공원 향교 건너편 예원식당. 062-652-3926.

▲전주리씨 대동중앙원 광주·전남 청년 이화회(회장 이상술) 월례회 의=16일(화) 오후 7시 지원사무실. 062-225-5631.

향우회

▲재광 해남군 산이면 향우회(회장 이양배)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16일(화) 오후 6시30분 풍암지구 영빈관 4층. 062-384-6000.

▲재광 진도군 임회면 향우회(회장 광봉일)=18일(목) 오후 7시 농성동 한국전력 후문 돌솥식당. 011-9221-9914.

모임

▲광주 토요산악회(회장 박길만) 송년회=16일(화) 오후 7시 상무지구 센트럴관광호텔 4층. 010-3608-4267.

▲무등클럽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19일(금) 오후 6시 매곡동 사본웨딩문화원. 010-8822-5425.

알림

▲국제절제협회 광주 서부지부 무료 웃음치료·건강 세미나=15일(월) 오전 10시 웃음 치료와 건강 강의를 통한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 010-4690-8054.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호남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에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인스틀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광주심리상담센터 습관성 도박 무료 상담=습관성 도박 및 투기, 투자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 062-527-3400, 340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모집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20일(토)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 교향의 봄·자유곡 1곡. 062-529-1125.

▲수도방위시령부 제33경비단 호수모집=김인기(부회장·불사조 321기) 011-633-5747.

▲사랑의 배움학교 문해 한글과정 자원봉사 교사 및 수강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

검정고시반, 한문반. 광산구 하남성심병원 인근. 062-951-5397, 011-9456-6037.

부음

▲장정순씨 별세 인종찬·철오·향남씨 모친상 김광목씨 빙모상=발인 16일(화) 활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314.

▲안용호씨 별세 승배·연순·정자·정남·순자·맹자·선자씨 부친상 양영식·장인주·유중운·김성규·오연수·손정수씨 빙부상=발인 15일(월) 우산동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